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로서 앞장섬

(금요일—오전 1부 집회)

메시지 1

앞장서서 본이 되고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함

성경: 요 6:57, 딤편 1:16, 4:12, 살전 1:5-7, 계 2:4-5, 엡 6:24, 시 110:3, 22:3

I.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로서 우리는 앞장서서 본이 되어야 한다.

- A. 주 예수님은 가장 풍성한 은혜이자 가장 달콤한 사랑이신 아버지를 누림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본이셨다—요 6:57, 사 7:14-15, 요 5:19, 4:34, 17:4, 14:10, 24, 5:30, 7:18, 눅 22:27, 마 20:26-28.
- B.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에게서 배우며, 아버지의 뜻에 의해 강권되고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일을 더욱 많이 하는 것에 있어서 그분을 우리의 본으로 취할 것을 명하셨다—마 11:28-30, 비교 엡 4:20-21, 고전 15:58.
- C.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확대하도록 그리스도를 사는 본이었다—딤편 1:16, 빌 1:19-21상.
- D.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순수함에 있어서 믿는 이들에게 본이 되라고 명했다—딤편 4:12.
- E. 바울은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엡 5:1, 마 5:48.
- F.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 것같이, 우리가 그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전 11:1, 4:16, 살전 1:5-6, 살후 3:9, 빌 3:17.
- G.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다른 믿는 이들에게 본이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다—살전 1:7, 2:14.
- H.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그분의 재생산이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본으로서 남겨 두셨다고 말했다—벧전 2:21.
- I. 요한은 “그분의 존재 그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사셨으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동일한 사랑의 생명을 살아 그분과 똑같이 되도록 이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을 가리킨다—요일 4:17, 비교 3:3, 7.

II. 첫째가는 사랑, 곧 최고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에서 주님께 으뜸의 위치, 첫째 위치를 드리며, 그분의 사랑에 강권되어 우리의 생활에서 그분을 모든 것으로 여기고 그분을 모든 것으로 취하는 것이다—계 2:4, 골 1:18하, 고후 5:14-15, 막 12:30, 시 73:25-26, 80:17-19.

- A. 각 사람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은 주님의 인격에 대한 이상에서 시작된다. 주님을 향한 첫째가는 사랑에서 떠나는 것이 역대에 걸친 교회의 실패의 근원이자 주된 이유이다. 우리를 주님과 합당한 관계 안에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빌 3:8, 마 26:6-13, 엡 3:16-19, 6:24, 계 2:4-5, 비교 3:20.

- B.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회개하여 첫째가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첫째가는 행위는 첫째가는 사랑에서 비롯된 행위이다—계 2:5, 살전 1:3, 고후 4:5.
1. 아가서에서 우리 위에 있는 주님의 기(旗)는 사랑이다. 이것은 사랑이 우리의 좌우명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근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가서에서 추구하는 이는 또한 ‘사랑으로 병이 났다.’ 이것은 그녀가 소진되기까지 사랑이신 주님 안에서 기뻐했다는 것을 의미한다—아 2:4-5.
 2.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위에 펼쳐진 기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항상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나타내고 전시한다—롬 8:31-39.
 3.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산다면,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랑을 갖게 된다.
 4.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째가는 사랑을 떠나고, 회개하여 첫째가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증거를 잃어버릴 것이고 등잔대는 우리에게서 옮겨질 것이다.
- C.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주님과 개인적이고 애정어리고 은밀하고 영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다—아 1:1-4.
- D.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매일 아침마다 부흥되는 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 결과 우리는 새벽의 태에서 나오는 이슬 같은 그분의 청년들이 됨으로써 그리스도를 만족하게 하고(시 110:3), 배우는 이의 혀를 갖고 지친 이들을 말로 돕는 법을 알게 되며(사 50:4-5),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의 복음 봉사를 위해 하나님의 뜻과 기쁨을 구하게 된다(막 1:35).
- E.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매일 헌신하는 생활을 하여 오늘날의 나실인들이 되는 것인데, 이 나실인들은 신성한 삼일성 안에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들 안으로 분배함으로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완전히 분별되고 하나님으로 적셔져 있다—시 110:3, 민 6:1-9, 22-27.
- F.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삼상 12:23, 마 6:6, 14:22-23, 단 6:10, 2:17-18, 담전 2:1, 담후 1:3, 살전 5:17.
- G.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묵상하는 것이다—시 119:11, 14-15, 23, 48, 72, 78, 97, 99, 111, 113, 119, 127, 140, 147-148, 159, 162-163, 165, 167.
- H.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주님의 직접적인 임재에 다스림 받는 것이다—출 33:11, 14, 13:21-22, 고후 2:10.
- I.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엡 5:25, 고후 12:15, 고전 16:24.
- J.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교회를 건축하는 그 사역을 사랑하는 것이다—고후 8:5, 요일 1:3, 엡 4:11-12.
- K.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그 영에 의해 살고 행하고, 그 영에 의해 섬기며, 그 영을 공급하는 것이다—갈 5:25, 빌 3:3, 고후 3:6, 스후 4:6, 삿 9:9, 비교 삼상 2:30하.
- L.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그분을 생수의 원천으로 취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신 의도는 그분의 선민의 만족과 누림을 위해 생수의 원천, 곧 생수의 근원이 되시어 그분 자신을 그들 안으로 분배하심으로, 교회, 곧 하나님의 증가이자 확대인 하나님의 배필을 산출하여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충만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다—렘 2:13, 요 4:14하.

- M.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먹는 것이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 곧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교회생활에서 최우선의 일이어야 한다—계 2:7.
- N.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계속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을 취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맛보고, 그분을 누리는 것이다—사 57:20, 영어 회복역 각주 1.
- O.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중심 곧 붙들어 주는 축과 우리의 전부 곧 모든 것으로 취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 개인적인 우주의 축과 내용과 둘레로 취해야 한다—골 1:17하, 18하.
- P.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를 열망하고 그렇게 하려는 큰 뜻을 품는 것이다—고후 5:9, 골 1:10, 히 11:5-6.
- Q.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그 위에 남보석 같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두려울 정도로 투명한 맑은 하늘을 갖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와 주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는 임재라는 하늘에 속한 분위기와 상태와 상황으로 충만한 것, 즉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고 왕으로서 다스리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다—겔 1:22, 26.
- R.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그분을 머리로 붙들고 있으면서, 그분께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결정하는 분으로서 보좌에 앉으시게 하는 것이다—골 2:19.
- S.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일의 세부적인 모든 것들에서 여호와께 조언을 구하는 것이다—수 9:14, 빌 4:6-7.
- T.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흐름, 곧 주 예수님의 흐름에 으뜸의 위치를 드리는 것이다. 이럴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비추시는 분, 구속하시는 분,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분, 흐르시는 분, 공급하시는 분이 되신다—겔 47:1, 계 22:1-2.
- U.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연합된 영에 의해 지배받고 통제받고 지시받고 인도받고 움직이면서, 주님의 포로가 되고 “주님, 저를 당신의 포로로 삼으소서. 제가 이기도록 허락하지 마소서. 항상 저를 패배시키소서.”라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안식을 주의하는 것이다—고후 2:13-14.
- V.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찬양으로 그분을 보좌에 앉으시게 하는 것이다. 찬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행하는 최고의 일이다—시 22:3, 119:164, 34:1.

사역의 말씀에서의 발췌

첫째가는 사랑에서 떠나는 것을 이김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간증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67년 전인 1925년에 주님을 영접했다. 이 모든 세월이 지난 후에도 나는 주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아주 친밀하시다는 것과 내가 그분께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 나는 어떠한 종교도 관심하지 않는다. 나는 이 사랑스런 분, 곧 이 살아 계신 한 분만을 관심한다. 나는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늘 기쁘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덧붙인다면 더욱 좋다. 우리는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 얼마나 친밀하고 달콤하며, 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말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주님은 사랑이 깊으실 뿐만 아니라 매우 다정하시다. 그분은 애정이 충만하시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인 우리와 사랑에 빠지셨다. 만일 여러분이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즉시로 당신은 그분과 사랑에 빠질 것이다. 매우 자주 나는 어떤 일들을 하지 않는데, 이는 그것들이 옳지 않거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없는 것은 다만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첫째가는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이길 필요가 있다.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였다. 그 교회는 질서정연한 교회였다(계 2:2-3). 틀림없이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좋아할 것이지만, 그렇게 질서 있는 교회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렸다(계 2:4). ‘첫째가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제일 좋은’으로 번역된 단어와 동일하다. 주님께 대한 우리의 첫째가는 사랑은 틀림없이 그분을 위한 제일 좋은 사랑이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라고 말하였다. 여기에서 ‘제일 좋은’이라는 말은 ‘첫째가는’이라는 말이다.

이제 나는 첫째가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첫째가는 사랑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주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것이 틀리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제일 좋은 사랑인 첫째가는 사랑은 이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다.

첫째가는 사랑은 하나님 자신인 그 사랑이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본다(요일 4:8, 16). 온 우주 안에 하나님만이 사랑이시다. 주님은 남편들에게 그들의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하신다. 그러나 남편들이 자신 안에서 그들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랑이신 유일한 한 인격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제일 좋은 분이실 뿐 아니라 첫째가는 분이시다. 온 우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첫째가는 분이시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라고 말한다. 이것이 성경을 여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시작이시다. 하나님께서 처음이시다.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첫째 위치를 가지셔야 함을 말한다. 그분은 으뜸이 되셔야 한다(골 1:18하). 그리스도께서 첫째이셔야 한다. 첫째가는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가는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주 예수님을 모든 일에 있어서 으뜸으로 여기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모든 것이 되시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첫째가는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이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가운데 으뜸이신가? 우리가 이겨야 할 첫째 항목은, 으뜸이시며 첫째가는 분이시고 제

일 좋은 분이시며 참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을 이기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들이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으며, 교회의 타락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었다. 실지로 첫째가는 사랑을 버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 곧 그분을 모든 것 가운데서 첫째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큰 일에서만 아니라 작은 일들에서도 으뜸이 되셔야 한다. 형제들은 넥타이를 살 때 그리스도께 첫째 위치를 드려야 한다. 만일 내가 매우 세속적인 모양의 넥타이를 맨다면, 나는 나의 사역에서 주님을 위해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심지어 나의 양심을 위해서도 나는 어떤 모양의 넥타이는 댈 수 없다. 자매들은 헤어스타일에 있어서 그리스도께 첫째 위치를 드려야 한다. 만일 자매들이 헤어스타일에서 그리스도께 으뜸의 위치를 드린다면, 이것은 그들이 그분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세속적인 머리 모양을 한 자매들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첫째가는 사랑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그분께 으뜸의 위치를 드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옷을 입는 방식에서나 헤어스타일에 있어서 그리스도께 으뜸의 위치를 드려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모든 일에 있어서 으뜸의 위치를 드릴 때, 이것이 첫째가는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첫째가는 사랑이 우리가 구원받을 당시 그리스도인의 생활 초기에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말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을 때 비록 나는 주님께 매우 감사하였지만 지금과 같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었다. 67년 전에 나는 구원받고 주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내가 지금 그분을 사랑하는 것만큼 강하지는 않았다. 이렇므로 첫째가는 사랑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주님과 우리의 주인이신 분을 모든 일에서 으뜸이 되게 하는 것이 틀림없다.

때때로 나는 옷을 입고 있을 때에 주님께 “주님, 당신은 이 와이셔츠를 좋아하십니까? 당신은 이 신발을 좋아하십니까?”라고 말씀드린다. 그러한 대화는 첫째가는 사랑이신 주님과 매우 친밀한 대화이다. 첫째가는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큰 일에서 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역시 그분께 으뜸의 위치를 드리는 것이다.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에서 그리스도께 으뜸의 위치를 드려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 으뜸의 위치를 드리지 않는 모든 일들에 대해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구할 필요가 있다.

만일 우리가 주 예수님을 이러한 방식으로 그러한 정도까지 사랑한다면, 우리는 결코 세 가지 ‘교(敎)’ 안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결코 어떤 종교 안에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할 것이지만, 어떠한 ‘종교’도 미워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들이 속해 있는 종교는 미워해야 한다. 주님께서 이러한 ‘교’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것들을 미워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해야 한다(비교 계 2:6).

주님은 추수 때까지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두라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첫 번째로 하실 일은 천사들을 보내시어 가라지를 단으로 묶어 불 못으로 던지시는 것이다. 왕국의 아들들인 밀은 왕국을 구성하는 반면에, 악한 자의 아들들인 가라지들은 왕국의 외형, 곧 오늘날의 기독교계를 형성해 왔다. 주님은 이러한 외형을 미워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이겨야 한다.

우리는 또한 넥타이를 매는 문제에서나 헤어스타일에서, 또한 모든 작은 일들에서 이겨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으뜸의 위치를 드려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이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달라질 것이며 우리의 느낌도 달라질 것이다. 온종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할 때, 모든 것이 유쾌할 것이다.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불쾌할 것이다. 은혜이신 주님을 누리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만 함께한다(엡 6:24). 이와 같이 우리가 이겨야 하는 첫 번째 일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리는 것을

이기는 것이다. 첫째가는 사랑을 버리는 것이 역대로 교회의 실패의 근원과 주된 원인이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을 지속함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러한 훌륭하고 질서정연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먼저 첫째가는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을 이길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것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을 지속하는 것이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주님은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계 2:7)라고 말씀하신다.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째가는 사랑을 버리는 것을 이길 것과,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을 지속할 것을 명하셨다. 만일 우리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 으뜸의 위치를 드리며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매일 누린다면, 우리는 놀라운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이다.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낙원을 소유할 것이다. 생명나무는 창세기의 에덴동산에서 처음 나타난다. 그 에덴동산은 당시에 하나님의 낙원이었다. 오늘날 우리의 낙원은 교회생활이다.

나는 1932년부터 시작하여 60여 년 동안 교회생활 안에 있었으므로 많은 교회생활을 체험했다. 만일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주님께 으뜸의 위치를 드리지 않거나 주님을 누리지 않는다면, 교회생활은 여러분에게 즐겁지 않은 곳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여러분은 그와 같이 말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속 깊은 곳에서는 교회생활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때에 교회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낙원이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첫째가는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을 이기고 그리스도를 먹는 것, 곧 주님을 누리는 것을 지속한다면, 즉시로 교회생활은 여러분에게 낙원이 된다. 이와 같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느낌과 태도는 우리의 상태에 달려 있다. 만일 우리가 모든 일에서 주님께 으뜸의 위치를 드리며 온종일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교회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교회는 즉시로 우리에게 낙원이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이다.

물론,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하나님의 낙원은 실지로 천년왕국에서의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이 시대에서 주님을 누린다면, 우리는 천년왕국에서의 하나님의 낙원인 새 예루살렘 안에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먹는 것을 보상으로 받을 것이다. 우리는 천년왕국에서의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기 위해, 현재 교회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공급을 계속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낙원으로서 신천함 가운데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 공급에 대한 누림에 완전히 참여할 것이다.

등잔대로서 신성한 빛을 발함

우리는 첫째가는 사랑을 버리는 것을 이겨야 하고,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먹는 것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등잔대로서 신성한 빛을 발할 필요가 있다(계 2:5하). 사랑은 생명과 관련되며, 생명은 빛과 관련된다. 사랑과 생명과 빛은 삼일이다. 여러분이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첫째가 되시게 한다면, 여러분은 사랑을 가진 것이다. 여러분이 이 사랑과 생명을 가진다면 주님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이 생명은 여러분에게 빛이 된다. 등잔대인 교회의 빛은 어두운 밤과 같은 교회 시대에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단체적으로 빛을 발한다.

그들의 지방에서 등잔대의 빛 비춤인
예수님의 증거를 지킴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랑과 생명과 빛으로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방에서 등잔대의 빛 비춤인 예수님의 증거를 지킬 것이다(계 12:17하). 우리는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인생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과 강림과 두 번째 오심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다. 빛을 비추는 것은 일종의 증거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비추어내야 한다. 이러한 빛 비춤이 등잔대의 빛 비춤이다.

우리는 영어 알파벳 중 ‘엘(1)’로 시작하는 네 단어, 곧 사랑(love)과 생명(life)과 빛(light)과 등잔대(lampstand)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엘(1)’로 시작하는 이러한 네 단어의 시작은 사랑(love)이다. 우리는 첫째가는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방식과 모든 일들에서 주 예수님께 으뜸의 지위를 드려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생명나무로 누릴 것이며, 그 즉시 이 생명은 생명의 빛이 된다(요 8:12). 그때에 우리는 등잔대로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또한 단체적으로 빛을 발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등잔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에게서, 단체적으로는 교회로부터 옮겨질 것이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그분을 누리기 위해 회개하고 첫째가는 사랑을 회복하라고 경고하셨다. 그렇지 않으면 등잔대는 그들에게서 옮겨질 것이다. 우리에게 는 사랑과 생명과 빛과 등잔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아내는 것을 주님께에서 보상으로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의 원칙은 우리의 존재가 항상 우리의 보상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보상이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함이 우리에게 보상이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부모님께 대한 우리의 공경이 우리에게 보상이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교회생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교회생활에서 우리에게 상으로서 주어질 것이 전혀 없을 것이다. 대신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지 않기 때문에 장로들과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쓴 맛을 느낄지도 모른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한다면, 이러한 삶과 행함은 우리의 보상이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교회생활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만일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든 일에서 첫째로 여긴다면, 우리는 사랑을 가질 것이고, 그분을 생명으로 누릴 것이며, 빛이신 그분으로 빛날 것이고, 예수님의 증거인 빛나는 등잔대가 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이 시대에서뿐만 아니라 더욱 오는 시대에서 우리의 보상이 될 것이다.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우리의 보상으로 누릴 것이다. (이기는 자들, 36-43쪽)

주님을 사랑함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며 성경적인 길인 새 길을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 모두는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분을 사랑하는지 물어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주님은 “내 어린양들을 먹이십시오.”,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라고 말씀하셨다(요 21:15, 17). 말하는 것은 함양하거나 가르치는 것일 뿐 아니라 어린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먹이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자 한다면, 우리는 말을 해야만 한다. 말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먹일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른 이들에게 당신을 말해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말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게 되고 장비되며 심지어 온전하게 된다.

성경에 의하면 자매들은 타고난 본성에 따르면 보다 약한 질그릇들이다(벧전 3:7).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자매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을 할 것이다. 나는 기독교 안에서 태어났고, 19년 동안이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은 채 그 안에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숙녀가 내 고향에 왔다. 나는 19세였고, 그녀는 25세였다. 그것은 60여 년 전 보수적인 중국 본토에서의 일이었다. 젊은 숙녀가 천여 명의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은 매우 독특한 일이며 흔치 않은 일이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집회에 매우 자주 다녔었지만, 호기심에 차서 이 숙녀가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그 집회에 갔었다. 내 온 생애를 통틀어, 심지어 오늘 날까지도, 나는 사람이 그렇게 큰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그녀는 약 천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찬 집회 장소의 연단 위에 서 있는 젊은 아가씨였다. 그녀의 말을 듣고 있는 동안, 나의 모든 호기심은 사라져 버렸다. 그녀가 말한 모든 말들이 나를 사로잡았고, 나는 완전히 확신을 갖게 되었다. 나는 기독교 안에서 자라온 청년이었지만, 그날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주님께 사로잡혔다. 집회 후 집을 향해 걸어오면서 나는 기도했고 나의 전 생애를 주님께 드렸다.

겨우 25세 밖에 되지 않은 그 젊은 숙녀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다. 그것이 그녀의 동기였다. 주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이 그녀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한 요인이고, 요소이며, 기본 본질이었다. 그녀가 전한 말씀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었다. 그녀는 이집트가 세상을 예표한다는 것과,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의 학정 아래 있었던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학정 아래 있다는 것을 청중들에게 말해주었다. 그녀는 우리가 이 학정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과 이것이 곧 우리의 출애굽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메시지의 앞부분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더 이상 사탄의 학정 아래 있지 말아야겠다고 혼자 말했다. 이 젊은 자매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권위를 가졌고, 그녀의 복음 전파에는 강한 영향력이 있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주님으로 충만할 것이다. 우리 속에 충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 밖으로 나올 것이다. 흘러넘침은 내적인 충만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분은 우리를 채우실 것이다. 1925년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렸던 그날부터 나는 성경을 연구하기를 좋아했고 또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에 관해 말하기를 좋아했다. 나는 주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 했다. 우리가 주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확실히 우리는 쏟아 부을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만일 자매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들은 주님을 말해내는 데 자신을 억제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할 때 우리는 틀림없이 말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 속을 채우신 분을 해방해야만 한다.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를 말함, 39-41쪽)*